

성경적 문화관과 우리의 태도

변 증 길

I. 문화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II. 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서 론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생산한 쌀을 먹으며 불신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며 이 세상 풍속과 사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며 전도에 힘쓰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들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며 각 시대마다 다른 해답들이 주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지, 특별히 타락 이후에 구속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방대한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으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 소명(Kulturberuf, cultuuroeping)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 일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I. 문화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찍부터 우리형제들 사이에 성경이 요청하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왔다. 하나는 마28:18-20에 나오는 선교적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창1:26-28에 나오는 문화적 사명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간단하게 전도 소명(傳道召命)과 문화 소명(文化召命)이라고 부를 수 있다.¹⁾ 그러면 이 두 소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과거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바 간단한 서술과 정리가 필요한 줄로 생각된다.

1) 어떤 이들은 문화 소명으로써 이 양자를 포괄하려고 하였다.

전도소명과 문화소명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느낀 어떤 형제들은 이 양자를 문화소명이라는 이름하에 통일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文化, Culture)라는 개념을 확대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즉, 문화란

1) 사명(使命)이나 소명(召命)이나 서로 비슷한 말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소명(calling, Beruf, roeping)이란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며 행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산물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행위 또는 전도행위도 다 문화 활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도 소명과 문화 소명 사이의 갈등은 문화소명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결책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에는 중대한 오류가 담겨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한낱 인간 활동의 산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²⁾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계시적 측면을 무시하고서 자연주의화하는 것으로서 결국 기독교를 부정하는 행위이다(벧후 1:16, 갈 1:11, 12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을 문화 소명으로 일원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어떤 이들은 이와 반대로 전도 소명만을 주장하거나 전도 소명으로써 이 양자를 포괄하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문화소명 일원론에 불만을 느낀 몇몇 형제들은 문화소명을 부정하고서 전도소명만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속에 깊이 들어간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문화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동기를 간파하고서 문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그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담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만 주셨지 문화적 사명은 주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과 전도를 요구하고 있지, 문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2) 문화가 종교를 포함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主義文化觀), 부산, 성암사, 1977, p. 28f.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부 형제들은 과민한 반발을 보였는데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란말이나?”라는 것이었다.³⁾

그러나 좀 더 온건하고 이지적인 해결책이 시도되었다. 그것은 곧, 전도 소명으로써 문화소명까지 포괄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화 소명으로써 전도소명을 포괄하려던 것과는 정 반대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이란 개념이 사용되었고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즉,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모든 것, 모든 삶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앙이란 개념을 광의로 이해함으로써 문화를 신앙속에 포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모든것, 이것은 곧, 신·구약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도란(또는 신앙이란) 창세기 1장에 있는 문화 소명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관행에 일치하는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앞에 제시된 해결책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문제는 신앙(신앙 행위)이라는 개념으로써 문화(문화 행위)라는 개념을 포괄해도 좋으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논리적 해결로서는 그런 대로 괜찮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3) 여기서 여러분은 양 주장이 지나쳐서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발전된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보민 교수님도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 이 교수님은 “문화행위”라는 것도 결국 “신앙 행위”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 「월간고신」 1982년 1월호 pp. 28~34, “개혁주의 문화관과 전통 문화 수용의 한계”

의 일상 생활의 언어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그것들이 신앙의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 할지라도 그것들 자체가 신앙 또는 신앙 행위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문화란 말은 무엇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신앙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좁은 의미에서의 신앙과 넓은 의미에서의 신앙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대한 행위는 “경배”로 부르고,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행위는 “윤리”로 부르고, 사람이 자연에 대한 행위는 “문화”로 부르도록 하자. 경배와 윤리와 문화 이 셋 중에서 첫째 것만을 신앙으로 부를 수도 있고 (협의), 첫째와 둘째 것을 합하여 신앙으로 부를 수도 있다(광의).⁵⁾ 그러나 마지막 것에 대해 신앙 또는 신앙행위로 부르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 행하며 이룩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지칭하는 단어로써 그 존재영역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창 1 : 26-28의 말씀에서 좀 더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사실은 이 사명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26절 참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창 1 : 28). 이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충만하라 ② 정복하라 ③ 다스리라.

여기서 첫째 것은 둘째, 세째 것을 위한 기초이므로 둘째, 세째가 소

5) 첫째것 곧 경배 행위를 “하나님 사랑”과 결부시킨다면 둘째 것, 곧 윤리 행위는 “이웃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다(마 22 : 37~40 참조).

6) 창 1 : 26 참조. 여기서는 한 마디로 “...다스리게 하자”로 되어있다. 즉 28절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26절에서는 “땅과 생물을 다스리라”로 되어 있다.

명의 주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다스리라”는 것이다.⁶⁾ 따라서 문화 소명이란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활동이란 땅과 생물에 대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란 말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선한 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 영역에 대해서만 문화란 말이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⁷⁾

4)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 소명에 대해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문화 소명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문화 소명을 잘못 이해해 왔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창 1 : 26~28의 문화 소명을, “자연계에 숨겨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⁸⁾으로 이해하였다. 또는 “잠재하여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휘”⁹⁾하는 것, “창조시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것”¹⁰⁾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들은 창 1 : 26~28의 문화 소명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변화한 결과에서 오는 오류들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러한 이해가 잘못 되었는가? 그것은 문화 활동을 자율화시키고 문화 그 자체의 영역을 목적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잠재해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최대한도로 개발할 소명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문화 활동(또는 연구,

7) 문화란 말이 자연이란 말과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봉호 박사의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태길의 저, 『現代社會와 哲學』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1, pp. 155~174 “文化의 本質”

8)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공역, 『칼빈주의』,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4 판 p. 61.

9) 상게서, p. 61. 또한 Henry R. van Til, 전게서 p. 40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0) K. Schilder, *Christus en cultuur*, Vijfde druk, Uitgeverij T. Wever B. V., Franeker, p. 54.

탐구, 개발활동) 그 자체를 선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며 결국 자율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문화소명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문화 활동 그 자체를 자율화시켜서 우상시하게 만든 중대한 잘못 이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첫째는, 무절제한 개발 활동으로 말미암아 20C 후반에 들어와서 공해(公害)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문화활동을 하다보니 공해가 생겼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약 1 : 17). 둘째로, 무제한적인 연구 활동으로 말미암아 현대 국가들이 많은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소명을 따라 열심히 연구, 개발했는데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무기들이 나오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소명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창세기 1 장에 주어진 문화소명을 선한 관리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 소명의 주요 내용은 곧,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이 아니라 관리이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의 정복의 개념도 탐구·개발·착취가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에서 그것은 하나님-사람-자연의 위계질서의 관점에서 자연을 사람의 발 아래 두는 것이고(시 8 : 6 필히 참조), 그것은 곧 자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창조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와 동물 상호간에도 평화가 존재했었다(창 1 : 29, 30, 3 : 1 참조).¹¹⁾ 이것이 우주적 평화였으며 우주적 의였다.¹²⁾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땅의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관리할 사명을

11) 타락전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으며 육식은 노아홍수 이후였다(창 1 : 29, 창 9 : 3 참조). 그리고 타락전에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었다(창 1 : 30, 사 11 : 6 ~ 9, 65 : 25 참조).

12) 그러므로 창조시의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상호관계는 “절서 있는 평화관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부여 받았으니 이것이 곧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소명이다.

II. 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면 우리는 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대학생으로서 우리들은 현대 문화속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도전과 고민 속에 싸여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문화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인가? 문화의 문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까? 지성인답지 못하다. 문화의 문제는 적혀두고 선교, 단체에서 처럼 영혼구원에만 힘쓸까? 뜨겁긴 하지만 문화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개조할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너무 이 땅의 것을 위해 힘쓰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문화관이란 무엇일까?

1) 종말론적 문화관

종말론적 문화관이란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문화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종말, 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살전 4 : 16). 그 때에 죄에 물든 이 세상이 다 불 타 터인데 인간의 문화적 업적도 함께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벧후 3 : 7, 10). 이처럼 이 세상의 문화가 결국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면 우리는 문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불타 없어질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절대적인 것 곧, 하나님과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눅 21 : 33).

종말론적 문화관이란 또한 우리 개개인이 각자에게 닥칠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원수,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 이편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저 편을 바라보

면서 살아야 한다. 칼빈은 그의 주저 “기독교 강요”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명상”(meditatio futurae vitae)에 대해 길게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죽음 저 건너 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종말론적 문화관이란 또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문화관을 말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원래의 온전함 곧, 의와 거룩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창 1:28의 소위 문화 소명은 타락 이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활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창 1:26)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올바른 문화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인이 최초로 성(城)을 쌓고 도시 문화를 건설했으며(창 4:16, 17),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말았다(창 11:1~9).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창 1:28의 문화 소명을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 이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아홍수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만 되어 있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없다(창 9:1). 물론 이것이 창 1:28의 문화 소명의 전적 폐지라고 보지는 않지만 중대한 변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처음 영광을 잃어버리고 장차 나타날 마지막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고 따라서 우리의 문화 활동도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과도기적인 또는 종말론적인 문화관이라고 해서 모든 문화활동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된

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단순히 절망과 위축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보다 더 힘차게, 더 알차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의식이다. 우리의 모든 문화활동이 다 불타버릴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빛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7, 8).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대적인 것으로 된다. 주의 것이 된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활동은 자연히 상대화되고 만다. 우리는 못 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미련을 가지지 아니한다(창 19:26)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문화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초연(超然)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창 19:27~28).

2) 일원론적 문화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일원론적(一元論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뿐이기 때문이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5, 6). 이처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도 일원론적으로 통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두가지 생활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실질적으로는(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무어라고 고백하든 간에) 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과 평일, 교회와 세속, 그리고 신앙과 학문, 이 둘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원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주일의 하나님은 또한 평일의 하나님이지요, 교회의 하나님은 또한 세속의 하나님이지요, 신앙의 하나님은 또한 학문의 하나님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원론적 생활 원리는 우리의 문화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¹³⁾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활동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어떤 다른 자율적 원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서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세계에는 신앙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원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자연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회학에서는 맑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도입하며, 경제학에서는 이기주의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그들은 결국 두 하나님을 섬기며 두 신앙을 가진게 아닌가? 곧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유신론의 신앙을,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곧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다.

물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또는 모든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끝까지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문이 다 불신자의 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13)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대로 문화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자. 즉, 이 글에서 문화라고 할 때는 인간의 모든 윤리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용, 탐구, 지배활동을 가리킨다.

비판적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 학도들이 우리의 일원론적 생활 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요, 충성스런 반항이다. 물론 비판적 태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한 유신론의 학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학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일원론적 신앙, 일원론적 문화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일원론적 문화관은 무엇보다도 다음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란 우리의 문화활동을 나타낸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일원론적 통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 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일원론적 통일이란 신앙에 의한 통일이다.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무슨 문화활동을 하든지 신앙에 의하여 규정지어지고 통일되어져야 한다. 신앙은 모든 활동의 위에서 통제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앙과 문화의 관계는 좌편 왕국과 우편 왕국의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원추형(Cone)의 꼭지와 밑바닥의 관계와 같다. 신앙은 원추형의 꼭지에서 둥근 밑바닥의 문화활동을 감시하고 지배하며 통제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영토분할식의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에 의해 통제되는 문화 활동에서 참된 문화가 이루어지며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14)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Nicholas Wolterstorff, *Reason within the Bound of Religion*, Eerdmans, Michigan, © 1976. 여기서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헌신(authentic christian commitment)이 그의 학문 활동(Scholarly Work)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잘 밝혀 주고 있다.

3) 변혁적 문화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올바른 문화관은 변혁적 문화관이어야 한다. 변혁적(transforming) 문화관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우리 개혁신파에서 취하는 입장이다. 이는 터툴리안(Tertullianus)의 배타적 문화관이나 리츨(A. Ritschl) 등의 타협적 문화관과 대립된다. 터툴리안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Quod Athenae Hierosolymis?)라고 하여 기독교와 세상 문화와의 접촉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의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예술이나 운동경기, 오락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산에서 장막을 치고 살기를 좋아했으며 가인처럼 성을 쌓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와서 이런 소극적 태도는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이교적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바라볼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혁(transform)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이교 철학을 이용하여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고 이교도 때 배운 수사학을 이용하여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혁적 문화관을 존 칼빈이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가능성과 더불어 커다란 함정이 있다. 우리가 이교 문화를 변혁시켜서 기독교적 문화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온 민족이 복음화 되고 또 모든 이교 문화가 전부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고 대답한다. 어느 정도 기독교적으로 개선된 것도 있으나 사회의 죄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가고 많아지는 것 같다.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또한 그렇게 말한다. 주님의 재림전에 이 세상의 악은 더욱 더 창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마24:12, 딤후3:1~5, 계20:7, 8). 종말이 가까와 올수록 선과

악의 진전이 심화되며 참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구별이 뚜렷해지는데 사회 전체의 상황은 불신자들의 죄악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막13:13).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고 또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분별하게 기독교 문화 건설을 외치는 자들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우리는 단지 신앙 안에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낙관주의적 입장을 취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매우 피상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의 교회는 낙관적인 무드에 흠뻑 젖었다. 마치 금방 온 민족이 복음화될 듯이, 마치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듯이 술렁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낙관주의는 점차 비관주의로 바뀌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운동은 이제 그만 공중에 떠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땅 위에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자” “20년 후”(After twenty years) 운운 하는 것은 마치 잠꼬대와 같아서 허공에 맴돌 뿐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비전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따라 갔어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화에 대한 변혁적 태도는 포기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변혁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힘써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변혁(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2) 이러한 운동은 주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5)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회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 권장된다.

(6)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금지되며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7) 새로운 문화의 개발과 연구 활동도 장려되나 그것보다도 기존 문화를 원래의 문화 소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8) 문화의 회복과 치료의 방향은 효율성이나 신속성이나 편리성의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성도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록과 사랑을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9) 이 세상의 문화적 업적 가운데서 가연적(可然的)인 것은 천국에 까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 문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별히 천하보다 더 귀한 인간의 영혼을 순화시키는 문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참된 신앙이 내적 통제 원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문화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의 문화관을 그대로

표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문화관이 강하게 종말론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문화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우리의 문화활동이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일원론이 되어야 함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또한 문화 변혁을 위한 조심스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문화란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지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화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필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닌가? 문화란 옷과 같아서 갈아 입을 수 있다(시102:26).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사회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불쌍한 이웃에 있어야 할 것이다. (화란 캠퍼신학교 유학중)